



중동의 유일한 희망 빛의 전사

브라더 앤드류, 알 안센 지음 | 최요한 옮김
 신국변형 512면 | 16,000원
 주문문의 : 김재준 간사 016-9238-9942
 작성자 : 신현정 간사

**이 책은 결코 픽션이 아니다.
모두 사실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무참히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인 시각은 물론 그 지역과 역사가 성경에서 갖는 특수한 의미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편향적인 시각으로만 이 상황을 판단해 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분쟁과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책이 바로 여기 있다.

흰머리 청년 브라더 앤드류의

역동적이고 극적인 사역이 이제 주님이 사시고 죽으신 땅,

바로 중동에서 이어진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그 어둡고 황량한 곳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을 우리는 **빛의 전사**라 부른다. 그들은 끝까지 그 땅에 남아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도 담대하게 행하는 브라더 앤드류, 그가 전하는 중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갖고 있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느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하고 기도드리지는 아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정적이고 갈급하게 주님을 사모한다.

팔레스타인 아랍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박해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멸시와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중동을 지키는 빛의 전사들이다.

“아야톨라 파들알라와 만났을 때 통역을 도와준 친구 지하드가 나중에 손수 써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브라더 앤드류에게.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서방세계에 사는 푸른 눈의 백발 외국인, 혼란스런 중동에 와서 우리 형제들과 자기 형제들을 동시에 해방시키려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그 남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브라더 앤드류,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하드 드림.’ ”

-본문 중에서